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⑳ 속리산 법주사 전나무

돌아가도 빨리 가도 단풍은 든다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은 차는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말티재로 들어선다. 청주에서 법주사까지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IC까지 멀어 국도로 간단다.

높다는 마루의 준말 '말'과 고개라는 '티'를 합한 말티재 길이 난 건, 신라 진흥왕 14년(553년) 인도에 다녀온 의신조사가 법주사를 세우기 위해 우거진 산림을 헤치고 걸었기 때문이었을까? 이후 속세와 분리되었다는 속리산 안에 항시 법이 머물러 있다는 사찰을 찾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길은 넓어지고 단단해졌을까?

박석재라고도 불리는 꼬부랑길은 고려 태조 왕건이 법주사로 행차하면서 얇은 돌 즉 박석을 깔았기 때문인데, 그 시기 천년 고찰은 더 크게 중창이 되었단다, 조선 초 세조가 신미대사를 찾아가면서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60여 동의 전각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사명대사께서 팔상전을 중건한 뒤 벽암 스님이 다시 중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고,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다.

차로 넘어가는 도로가 건설되기 전, 새끼 꼬듯 심하게 뒤틀린 길은 아니었겠지만,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걷고 걸어 분지에 자리 잡은 법주사에 다다르면, 속세에서 덕지덕지 붙은 욕망의 때가 충분히 벗겨질 거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말티재를 벗어나면서도 분명 직선에 가까운 국도가 생겼을 거라는 질문을 가졌지만, 은거하듯 사는 차주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는 없다.

평지에서 산을 넘고 다시 평지로 오니 속세가 펼쳐지는 듯했지만, 고고하게 위풍당당한 정이품송을 보니 오르락내리락하는 고갯길보다 못하게 분란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수령 600살로 추정되는 벼슬 소나무의 높이는 14.5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4.7m란다. 1993년 서쪽 가지가 강풍으로 부러져 균형을 잃은 듯하지만, 살짝 걸음을 옮기면 원추형으로 온전해 보인다. 그래도 아쉬운 건 그 오랜 세월에도 소나무 최대 높이인 35m까지 자라지 못한 연유가 혹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땅도 숨을 쉬어야 그 사이로 뿌리가 뻗어가며 쭉쭉 생장을 해나갈 텐데, 답압 정도가 심하면 숨통이 막혀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표소 지나 세조길 자연관찰로는 평탄해 걷기가 좋다. 그런데 계수나무, 까치박달, 고로쇠나무



천왕문 앞 전나무 사이로 금동미륵대불이 보인다.

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울 뿐 소나무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이품송 기세에 눌려서 숨어 있나 싶었는데, 일주문에 들어서니 길 옆 숲에 소나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호서제일가람'에 이어 '속리산대법주사' 현판까지 눈으로 보고난 뒤 다시 살피니 일주문을 훌쩍 뛰어넘는 높이에 큰 기대를 안아본다. 속세의 벼슬이 무용지물이 되는 평등의 공간에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가 있을 것 같다.

속리산 입산만으로도 속세와 이별한 듯한데 계곡 위에 놓여 있는 수정교까지 건너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이 몸 안 가득 번져 모든 시름이 사라질 것 같다. 하지만 금강문 지나 전봇대보다 높은 크기로 꼿꼿하게 서 있는 두 그루의 전나무를 마주하니 소나무가 아닌 것에 섭섭하면서도 언뜻 전나무 최대 높이인 40m에 육박하는 듯 보여 감탄이 툭툭 튀어 오른다. 생각이 사라질 틈도 없이 왜 이곳에 전나무라는 궁금증이 요동을 친다.

소나무과 상록교목인 전나무는 구불하게 자라기도 하는 소나무와 달리 곧게 자라고 재질도 좋아 기둥재로 적합하다. 집단으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아 벌레에도 강하다. 그래서 깊은 사찰 주위에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곧게 자라면 나무 사이로 멀리 내다볼 수 있어 위험 요소 대비가 쉽다. 피톤치드가 많으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어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된다. 상록침엽수이기에 눈이 많이 와도 잎 때문에 덜 싸여 이동하기가 조금은 자유롭다.

더는 전나무 존재 이유에 대해 파고들 게 없다. 베지 않고 살아 있어 천왕문 사천왕을 압도하는 듯한 위엄에서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생명체라는 걸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전나무 사이로 33m 높이의 금동미륵대불이 보인다. 눈대중으로 자세히 보니 인공물이 자연물보다 조금 높은 것 같다. 만일 그곳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112.6m의 '자이언트 세쿼이아'가 있었다면 시선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굳이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금동미륵대불을 지나니 두 그루의 보리자나무가 단풍이 들 준비를 한다. 그곳을 지나 전나무가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법주사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현존하는 목조 건물로 가장 높다는 국내단 하나의 5층 목탑 팔상전을 둘러본다. 그리고 밟아도 밟아도 높디높게 자란 전나무에 인사하고는 청주로 돌아가는데 잘못 들어선 길이 직선 국도다. 앞으로 이 길로 오면 더 빨리 법을 마주할 수 있으려나. 곧 속세에도 속리산에도 단풍이 곱게 들겠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⑲ 이성선의 '구도'

순결하고 간결한 삶 위한 블루스

구도(求道)/ 이성선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줄어들면서
그는 차츰 자신을 줄여갔다.

꽃이 떨어진 후의 꽃나무처럼
침묵으로 몸을 줄였다.

하나의 빈 그릇으로
세상을 흘러갔다.
빈 등잔에는
하늘의 기름만 고였다.

하늘에 달이 가듯
세상에 선연히 떠서
그는 홀로 걸어갔다.

–이성선 시인 20주기 추모 시선집 〈고향의 천정〉, 서정시학, 2021–

순연해진다. 이성선 시인 자신이 이 시처럼 순연한 시인이다. 짧고 맑은 시인이다. 시인의 그 간결을 위해, 시정(詩情)을 위해 시 몇 편 더 맛보고 가자.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 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같은 시집, 〈미시령 노을〉 전문

"저무는 들판에/ 소가/ 풀을 베어 먹는다.// 풀잎 끝/ 초승달을 베어 먹는다.// 물가에서 소는/ 놀란다./ 그가 먹은 달이/ 물 속 그의 뿔에 걸려 있다.// 어둠 속에/ 뿔로 달을 받치고/ 하늘을 헤엄치고 있는 제 모습 보고/ 더 놀란다."

–같은 시집, 〈달을 먹은 소〉 전문

"내설악에서 밤에/ 우주 전체가/ 계곡 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길을 따라 들어간다// 아무리 찾아도/ 절이 없다."

–같은 시집, 〈오세암〉 전문

이번에는 위 시들보다 '쬐끔' 더 긴 시 한 편만 더 읽어보자. '쬐끔' 더 긴 시에서는 어떤 시정을 보여줄까.

"내 몸이 다 비어지면/그대 곁에 가리라./ 겸허한 손 깨끗한 발로/ 그대에게 가서/ 쉬리라./ 잠들리라./ 그대 영혼의 맑은 사랑을/ 내 빈 그릇에 담고/ 내 꿈을 그대 가슴에 담아서/ 잠 속에 눈부신 나비가 되리라./ 금빛 침묵의 땅에/ 꽃처럼 떨며 열려서/ 사랑을 고백하리라./ 티 없는 눈빛으로/ 그대와 함께 걸어 강에 가서/ 엎드려 물을 마시리라./ 노래 부르리라./ 다 비우고 빈 몸으로 깨어나/ 새 악기가 되어서." –같은 시집, 〈내 몸이 비어지면〉 전문

그래. 이성선 시인은 2001년 위의 시처럼 60세의 나이에 그 "몸"을 "다 비우"고 "그대"(우주, 소, 달, 부처) "곁"으로 갔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했다. 그렇게 가서 지금 "쉬"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고, "새 악기"가 되어 "노래 부르"고 있다.

이처럼 '쬐끔' 긴 시에도 잡티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순결하고 순연한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시정으로, 어떤 우주로 태어났기에 이처럼 맑고 정결할까. 고형렬 시인은 이를 일러 "세상에 시인이 별처럼 많지만 끝까지 시인인 사람은 드물고 죽어서도 시인인 사람은 더 드물다. 또 그리워지는 시인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시간은 기억을 폐쇄회로 안에 전자 암호로 가둔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희석(稀釋)시키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사람도 풍경도 역사도 선별적인 이름이나 형용사로 남는다. 그(이성선 시인)를 해석할 수 있는 적합한 비평의 버전이 없지만 그가 지녔던 혼돈과 정갈함, 치열함, 언어의 파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규정되지 않은 한 줄기의 강한 소나기처럼 살아 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필자가 출가하기 전, 이성선 시인의 시를 읽으며 '좀 가볍고 노장(老莊) 세계에 너무 함몰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가 작고한 뒤, 그리고 필자가 출가한 뒤 그의 시(시집)을 다시 읽으며 필자는 필자가 이성선 시인의 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성선 시인의 시는 '노장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나 노장적 색채가 가미된) 불교적 (그리고 우주적)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성선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주객일치나 조화의 대상을 넘어서, 종교적 구도와 합일의 대상'(최동호의 〈한국적 전통과 현대 불교시의 전개〉에서 인용)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성선 시인이 생전에 펴낸 12권의 시집(〈시인의 병풍〉, 〈하늘문을 두드리며〉, 〈몸은 지상에 묶여도〉,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 〈별이 비치는 지붕〉, 〈별까지 가면 된다〉, 〈새벽 꽃향기〉, 〈향기나는 밤〉, 〈절정의 노래〉, 〈벌레 시인〉, 〈산시〉,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은 모두 '불교적(불교 우주적) 세계'가 관통하고 있다. 이성선 시인은 그 속내를 〈나의 시세계〉라는 산문을 통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나의 시는 나에게로 가는 문이다. 나의 시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고행의 발걸음이며 하늘로 가는 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몸짓이며 동시에 지옥과 천당을 한 몸에 지니고 가는 자의 노래이다. (……) 자기를 상실한 인간은 끝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또 다른 자기를 찾아 헤매야 했고, 인간으로 태어나 함께 길들여져 온 나 또한 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 헤매게 되었으니 이 고통 속의 헤맴이 내 시작업의 길이다."

그의 간결이, 고통이, 순결이, 순정이, 순연이 느껴지는 커밍아웃(coming out)이다.

"해골 파먹어 들어가는 벌레처럼/ 산에 달이 지고 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깜깜해/ 산은 허깨비 같은 큰 키로 일어나/ 그림자로 나를 덮는다./ 나는 그것을 덮고 잔다./ 이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나는 다시 혼자 깨어/ 불을 켜고 일기를 쓰다가/ 시를 쓰다가 멍하니 앉았다가/ 낙엽 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 본다./ 내 몸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 달은 나를 뚫고 내려가 이미 폐를 파먹고/ 산이 벌레를 숨겨 기른다./ 그 신음이 대지에 풀잎을 흔들고/ 들을 깨우고 개울을 건너/ 내게로 온다./ 내 속에서 바람이 자랐다./ 그때부터 내 속에서 슬픈/ 벌레 시인이 자랐다." -같은 시집, '벌레 시인' 전문

이제, 이성선 시인의 순정을, 고통을, 순연을, 우주를 조금은 알겠다. 이 시인이 왜 불교와 불교적 우주관에 천착하고, 삶에, 시에 얼마나 도통한 시인이었는지 '쬐끔'은 알겠다. 이성선 시인은 시작부터 그런 시인이었던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